

# 소장학자들의 한국사상 대탐사

한길사 '신한국사상사' 시리즈 1차분 전 5권 발간

한국사상 분야의 최근 연구성과들을 정리하고 이 분야 연구의 토대를 구축하게 될 대형기획이 선보여 눈길을 끈다. 한길사의 <신한국사상사>가 그것. 철학, 인문학, 사회과학, 경제사, 문학, 과학, 예술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사상사의 흐름과 본질을 파헤친 연구성과들을 담아낸 이 기획은 최근 나온 1차분 5권에 이어 99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60권이 발간될 예정이다.

## 세분화, 내밀한 주제

“제목에 붙여진 신(新)의 의미는 새롭다. 본질적이다. 진보적이다는 뜻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김언호 사장(51)의 말처럼 이 기획은 여러가지 의미에서 종전의 연구서들과는 차별성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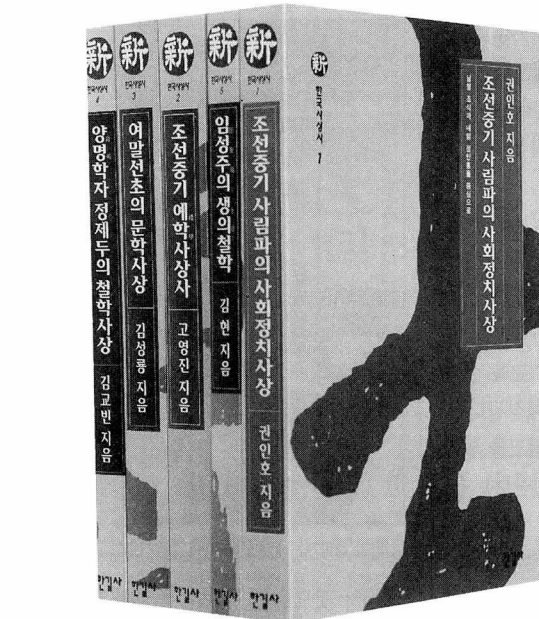
그 새로움은 무엇보다 집필진들이 이른바 한국사상계의 제3세대 학자라 일컬을 수 있는 소장학자들이라는 점에 있다. 암울한 정치상황과 외면할 수 없는 현실적 과제들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삶을 요구받았던 70년대, 혹은 80년대에 학교를 다녔던 이들 소장학자들은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논의가 주를 이루던 과거의 학문풍토에서 벗어나 현실에 착근한 문제의식을 학문을 통해 궁구하려는 태도를 지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과학적인 학문방법론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점도 이들 연구의 객관성과 보편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 아울러 전세대 학자들이 일군 원전 번역과 정리, 한국사상사의 굵직한 대주제들에 대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되 이를 뛰어넘어 보다 세분화되고 내밀한 주제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아울러 딱딱하고 어렵게만 기술돼 학계의 전유물로 남아 있던 사상사 연구의 성과들을 대중과 함께 공유하도록 한 것도 이 기획의 특징. 눈에 확 들어오는 화려한 컬러의 표지와 깔끔한 장정은 보는 이들에게 한 권쯤 가지고 싶다는 욕심이 일 정도로 공들인 흔적이 역력하다. 새롭게 해석하고 풀어써 어렵지 않게 읽히는 내용, 생동감 있는 사진과 그림, 도표를 수록하여 이해를 돕는 것도 이 기획의 특징이다.

## 최신 연구성과 답이

이번에 나온 1차분 5권은 그간 학계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의 연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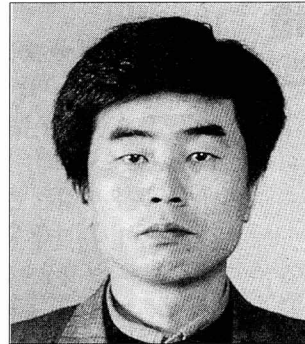
과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학계의 관심을 많이 받았거나 문제작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조선중기 사림파의 사회정치사상》(권인호, 대진대 철학과) 《조선중기 예학사상사》(고영진, 광주대 교양학부) 《여말선초의 문학사상》(김성룡, 호서대 국문과) 《양명학자 정제두의 철학사상》(김교빈, 호서대 철학과) 《임성주의 생의(生意)철학》(김현, 고려대 한문학과)이 그 목록이다.

1991년 발표 후 지금까지도 논란이 많은 문제작으로 알려진 《조선중기 사림파의 사회정치사상》은 왕정 쿠데타와 왕위찬탈의 성격이 강한 '인조반정' 이후 현재까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남명학파의 사상을 남명 조식(南冥 曹植)과 내암 정인홍(來庵 鄭仁弘)을 중심으로 재조명한 논문이다.

저자는 유학사상을 현실과 유리된 공리공담의 사변철학으로 전개한 보수적 사림파들과, 유학 본래의 경제세민(經世濟民) 사상을 토대로 다양한 학문을 수용하여 실천한 진보적 사림파를 구체적 학자들의 행적과 저술을 토대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남명학파를 정당하게 자리매김하고자 했다.

《조선중기 예학 사상사》는 16세기부터 17세기 초반에 걸쳐 예(禮)의 시행과 이해, 예설(禮說)의 이해, 예설의 변화, 예학(禮學)의 성립과정을 살핀 책이다. 저자는 연구 대상 시기를 16세기 초부터 17세기까지를 네 시기로 나누어 시대적 배경과 왕실, 사가(私家)에서의 예의 시행, 왕실전례에서의 대립 등과 관련하여 예의 사회적 기능을 우선 살핀다. 아울러 예서를 썼거나 예에 조예가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교빈, 김현, 권인호, 고영진, 김성룡 교수.



깊은 것으로 주목받던 인물을 빠짐없이 살펴 학자들의 예설(禮說)과 예론(禮論)을 살피는 한편, 여러가지 형태의 예서(禮書)를 분석하여 예학의 성립과정과 각 학파의 예설의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밝히고 있다.

'시운(時運)'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중세 후기 관각문인들의 문학 특성과 전개과정을 포착한 《여말선초의 문학사상》은 제3회 나 손학술상을 수상할 만큼 큰 관심을 모았던 연구성과다.

시운론(時運論)은, 문학이란 시대의 운세와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문학은 그 시대의 운세를 올바르게 표현하는 것이 긴요한 임무라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이 책에서는 시운론을 바탕으로 한 작품을 남긴 대표적인 관각문인이었던 이색, 권근, 서거정, 성현의 이론과 작품을 '시운'이라는 개념들로 분석, 이들의 세계관과 문학적 성과를 함께 해명하고 있다.

## 한국사상사 연구의 이정표로 자리매김

한국의 대표적인 양명학자 하곡 정제두(霞谷 鄭齊斗)의 철학사상을 분석한 《양명학자 정제두의 철학사상》은 그동안 한국철학계의 논의에서 소외되었던 양명학의 대표적 인물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신선함과 아울러

충격을 안겨준 연구로 꼽힌다.

《임성주의 생의 철학》은 조선시대 성리학이 주자학 일변도의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 현실의 추이 및 학자들의 문제의식의 심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해왔고, 후기로 갈수록 성리학 자체가 점점 양명학과 같은 성격을 띠는 방향으로 변화해갔다는 가설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한 변화의 실증적인 예로 녹문 임성주(鹿門 任聖周)의 철학사상을 구명하고 조선유학사의 발전적 흐름에 기여한 바를 밝히고자 했다.

저자들에게는 발표의 장을 제공하고 독자들에게는 학계의 연구성과들을 접할 수 있게 만든 이 기획은 분명 우리 학문의 유통구조에 숨통을 틔워주는 기획으로 주목할 만하다. 한국사상사 연구의 이정표로 자리하게 될 이 시리즈의 앞찬 결실을 기대한다.

—박남정 기자